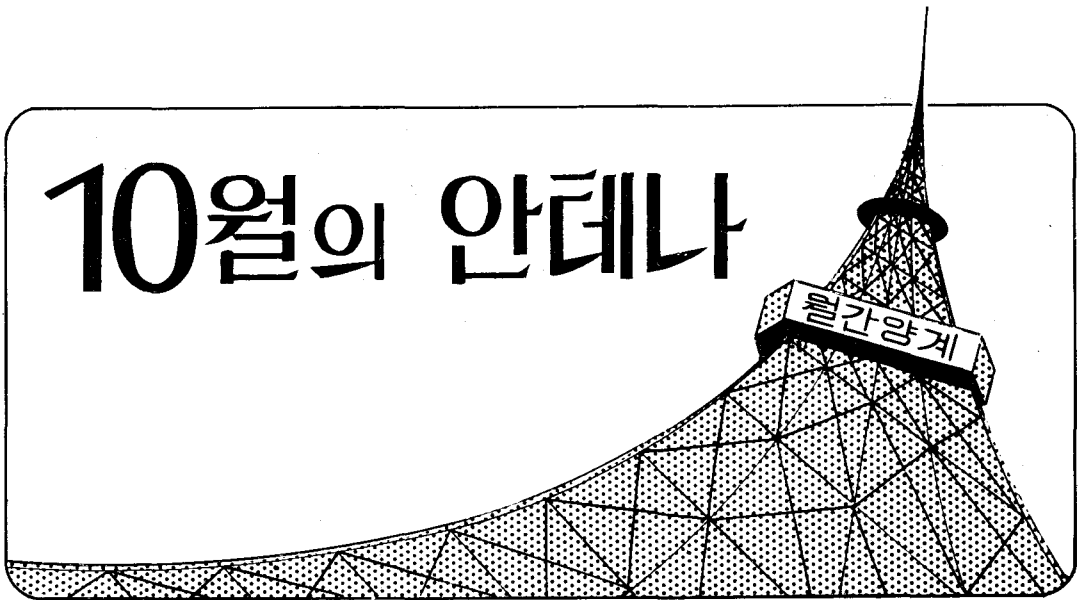


10월의 안테나



사료가격 인상폭을 줄여야

양계 경영비의 가장 큰 부분이 사료비이고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다.

양계산업이 이와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양계업자가 더욱 바빠지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고정환율에 의해 옥수수 가격 안정되게 공급되어 왔었으나 금년 2월 27일부터 정부가 환율운용을 본격적으로 유동화 함에 따라 환율에 따라 사료비가 변동

하고, 따라서 양계산물 생산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지 9월호 37p의 사료가격 전망에서도 환차손에 의한 사료가격 인상폭이 1.96%로 되었는데 이것은 환율이 9월에 625원05전 10월 631.49원을 가정한 것이었다.

이 환율의 가정은 현재의 환율상승 폭으로 환율이 오를 것을 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승윤재무장관이 부산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율을 지금까지는 월 7~8 원 인상하였는데 앞으로는 더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말한데 이어 19일은 하루에 2원 10전이 인상 됨으로써 2월 27일 본격적인 환율 유동화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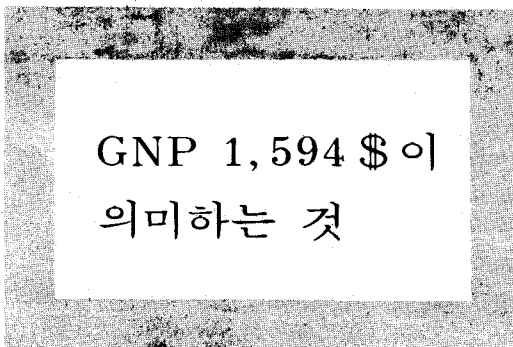
이날 상승폭이 컸으나 8월말의 616.30보다는 3원(0.5%) 상승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날 매매 기준율이 619.30으로 한국은행이 고시함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의 현찰매도율 및 매입은 미화 1불당 625.50원과 613.10원으로 각각 고시하였는데 이는 본지에서 예



측한 9월의 625.05원을 초과한 것이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율을 실세에 접근시켰다는 정부방침이 계속되는 한 당초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료가격의 자율화 이후 사료가격의 인상 시기, 인상폭이 사료공장에 따라 다르므로 양축가가 이에 익숙하지 못해 혼동을 하고 있어 적어도 환율에 의한 변동폭만이라도 흡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축진에서 옥수수 가격을 원화표시로 하고 환차손은 사료안정기금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선물환 거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79년도 실질 경제성

장은 6.4%를 기록하였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천 5백 94불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78년보다 3백 15불이 증가된 것으로 5인 가족을 기준하면 4,941,400원(1,594\$ × 620원 × 5인)으로 약 5백만원이 되는 셈이다.

전체 양계인중 몇%가 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작년도에 양계산업이 침체되었던것을 생각할때 많은 양계인들이 이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정부는 명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어져 82년도 부터는 다시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렇게 되면 90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앞당겨 질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4천불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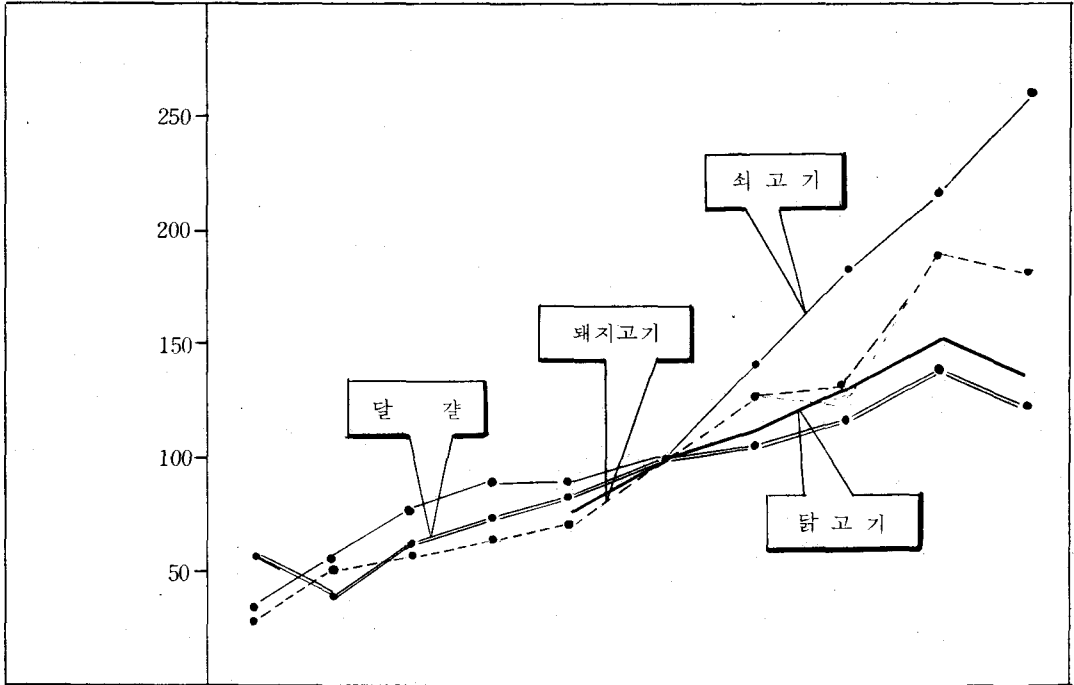
우선 양계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양계산업을 위해서는 양계인이 고급 단백질식품을 값싸게 국민에게 생산 공급한다는 궁지만으로 되어서는 어렵고 양계인도 소득이 4천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과연 90년도에는 몇 수를 길러야 4천불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 이 계산은 유동적인 것이며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국민소득 1인당 4천불이면 1가구당 약 12,400,000원이 된다.

(4천불 × 620원 × 5인 = 12,400천원)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양계산업의 특수성으로 보아 앞으로 그 수익폭이 점차 축소되어질 것으로 볼때 90년도에는 외형액의 3% 정도를 수익으로 (현재는 국세청에서 11%로 보고 있다)보면 413,334,000원의 총 외형액

지난 10년간 주요축산물 소비자가격동향



지수		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쇠고기	가격		351	530	608	658	789	892	1,274	1,655	2,076	2,315
	지수		39.4	59.4	68.2	73.8	88.5	100.0	142.8	185.5	232.7	259.5
돼지고기	가격		231	313	311	351	421	600	798	822	1,177	1,086
	지수		38.5	52.2	51.8	58.5	70.2	100.0	133.0	137.0	196.2	181.0
닭고기	가격		-	-	-	-	412	558	678	810	956	880
	지수		-	-	-	-	73.8	100.0	113.0	135.0	159.3	146.7
달걀	가격		123	114	128	154	186	239	255	290	336	321
	지수		51.5	47.7	53.6	64.4	77.8	100.0	106.7	121.3	140.6	134.3

註 1) 쇠고기, 돼지고기 : 원 / 정육 600g

2) 닭고기 : 원 / kg

3) 계란 : 원 / 대란, 10개

(닭고기와 계란은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하여 값도 오르지 못하고 소비신장율도 떨어지고 있어 생산자의 소득은 더욱 적어 질것으로 보여진다.)

이 된다.

(12,400천원 × 3 × 100 = 413,334천원)

채란계의 경우 계란 1개를 35원 받고 1수당 평균 연간 210개 산란으로 보면 약 5만 6천수의 규모가 된다.

(413,334천원 ÷ 35원 × 210개 = 56,235수)

물론 노폐계 수입등도 있으나 90년도에는 노계값이 초생추 값에도 미치지 못할것을 생각할 때 거의 무시하고 적어도 채란계는 5만 수 이상을 길러야 된다는 계산이 된다.

닭 사육규모별호수(만수 이상이 600호에도 못미치고 있다)

	계	1~19마리	20~49	50~99	100 ~ 199	200 ~ 499	500 ~ 999	1,000 ~ 1,499	1,500 ~ 1,999	2,000 ~ 2,999	3,000 ~ 3,999	4,000 ~ 4,999	5,000 ~ 9,999	10,000 마리이상
1974	1,001,885	978,883		14,630	1,490	2,568	1,397	739	456	434	203	578	326	170
1975	1,094,464	1,086,753		1,121	702	976	1,340	905	547	717	489	244	448	222
1976	1,236,771	1,211,776	15,852	1,312	666	1,128	1,582	1,052	641	928	595	290	641	308
1977	1,178,762	1,159,452	9,238	703	647	1,037	1,925	1,371	854	1,178	1,177		823	351
1978	1,172,054	1,150,325	9,082	790	822	812	1,822	1,629	1,182	1,286	581	1,882	1,304	537
1979	923,098	906,849	4,392	461	422	774	1,639	1,652	1,123	1,259	640	1,967	1,363	557

닭 사육 규모의 변화

	합 계		1 - 999		1,000 - 2,999		3,000 - 4,000		5,000 - 9,000		10,000이상	
	호 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구성비율												
1974	100	100	99.64	45	0.23	15	0.07	9	0.04	11	0.02	20
1975	100	100	99.65	43	0.21	14	0.07	10	0.05	12	0.02	21
1976	100	100	99.66	42	0.19	13	0.07	10	0.05	13	0.03	22
1977	100	100	99.58	37	0.24	14	0.09	12	0.06	14	0.03	23
1978	100	100	99.35	31	0.39	16	0.13	13	0.09	17	0.04	23
1979	100	100	99.18	22	0.44	17	0.18	15	0.14	20	0.06	26
증가비율												
19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75	109	111	103	97	96	97	110	112	122	115	121	107
1976	124	140	136	130	115	119	150	149	171	169	180	160
1977	118	160	135	123	143	145	185	185	203	198	195	169
1978	117	217	135	129	198	205	262	259	309	301	264	221
1979	92	219	114	96	223	233	319	315	391	379	309	263

육계의 경우도 1마리 1,200원으로 보면 (1.5kg×800원=1,200원)년간 344,445 수를 생산하여야 되며 년 5회 사육한다고 하면 그 사육 규모가 7만수 정도가 된다.

결국 양계업자의 기본수입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외형액에 대한 소득 표준을 높여지든가 또는 양계농가들에 적절한 양계이외의 부수입원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규모의 확대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양계업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철새들이 거쳐가는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계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어쩔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벽에 부딪혀 잡히고 말것 인가는 지금 우리가 나갈길을 선택하기에 달린것이라고 본다.

주요축산물 년도별 소비량

區分	1인당 국 소	육 류 총 량		육 우		돈 육		계 육		계		란		우 유	
		총 량	1인당	총 량	1인당	총 량	1인당	총 량	1인당	총 량	1인당	총 량	1인당	총 량	1인당
	\$	M/T	gr	M/T	gr	M/T	gr	M/T	gr	千個	個	M/T	gr		
1960	-	89,043	3,559	12,950	510	58,025	2,317	18,068	732	818,799	33	-	-		
1961	83	91,879	3,811	13,303	524	60,043	2,257	18,533	730	818,070	31	1,168	45		
1962	87	70,596	2,701	16,847	645	38,019	1,454	15,730	602	839,110	31	2,647	101		
1963	98	96,451	3,576	21,051	784	55,146	2,038	20,254	754	975,906	35	4,512	168		
1964	102	113,270	4,098	31,923	1,155	62,511	2,262	18,836	681	943,048	34	6,988	187		
1965	106	97,600	3,439	27,261	961	55,881	1,969	14,458	509	855,786	30	10,474	304		
1966	126	143,943	5,074	29,443	1,038	95,800	3,377	18,700	659	1,298,676	46	13,914	422		
1967	143	128,067	4,513	31,953	1,126	72,154	2,543	23,960	844	1,349,397	48	18,762	599		
1968	168	131,265	4,307	35,809	1,175	61,760	2,027	33,696	1,105	1,504,160	49	24,034	716		
1969	208	151,464	4,843	33,133	1,064	76,080	2,422	42,251	1,357	2,430,470	65	35,037	1,027		
1970	234	165,063	5,191	37,340	1,174	82,546	2,596	45,177	1,421	2,456,064	75	49,688	1,431		
1971	266	170,361	5,250	39,484	1,217	80,880	2,491	49,997	1,542	2,536,000	76	62,184	1,851		
1972	293	184,725	5,591	40,229	1,243	90,230	2,671	54,266	1,677	2,790,000	86	79,852	2,500		
1973	361	186,846	5,634	44,919	1,368	90,126	2,689	51,801	1,577	2,500,493	76	104,082	3,200		
1974	481	200,128	5,889	51,506	1,545	95,353	2,746	53,269	1,598	2,755,000	83	126,901	3,606		
1975	532	224,734	6,370	70,292	1,990	98,848	2,800	55,594	1,580	2,896,132	82	162,435	4,580		
1976	698	245,465	6,845	75,533	2,106	109,046	3,041	60,886	1,698	3,049,220	85	198,892	5,546		
1977	864	295,987	8,123	81,624	2,240	141,311	3,878	73,052	2,005	3,551,615	97	254,245	6,978		
1978	1,279	374,904	10,127	114,731	3,099	177,984	4,808	82,189	2,220	3,742,805	101	325,867	8,803		
1979	1,594	428,857	11,330	113,827	3,010	225,307	5,960	89,723	2,360	4,231,360	111	374,410	9,930		
1980		455,103	11,837	103,309	2,687	257,026	6,685	94,768	2,465	4,485,000	117	415,217	10,800*		
計劃															

月刊養鷄 합본 판매중

79. 1~79. 6
79. 7~79. 12

문의 ☎ (22) 3571~2

양계산물
소비확대
계기되길

지난 25일 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50%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비율을 사업에 따라 100%까지도 허용하고 외국인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있게 운용하고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적격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식품 의약품 제조사업과 유통 및 서비스산업을 추가시키고 투자 규모의 최저한도도 현재 50만\$에서 10만\$이상으로 안하 조정하는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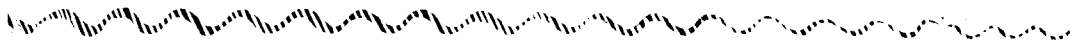
이 조치로 인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은 그간 지상에 상세히 보도 되었으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식품 의약품 제조사업과 유통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방침인 것이다.

그간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등, 닭고기를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외국의 유명업체의 국내 상륙이 막혔던 것이 이제 풀리게 되었고, 닭고기의 국내 유통 부분에도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국내 상륙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한때는 양돈 양계생산 분야까지도 합작투자가 허가 된적도 있었으나 당초 우리가 예상 하였던 효과도 없었고 우려하였던 일도 발생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유통부문과 최종 소비식품에 유명 외국 회사들이 참여 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성급한 예측을 현재로서는 할수 없지만 유통구조의 개혁과 소비성향 변화로, 현재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쇠고기가 비싸고 부족하니까 애국하는 의미에서 대용품으로 먹으라는 식의 잘못된 소비자 인식을 불식하고, 닭고기야 말로 값싸고 우수한 식품으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한다. 외국기술과 경영을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검토도 계속되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소득표준율의 현실화

금년도 사업분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모두 종료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간 신규업자외에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업자들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의 연장문제는 목장용 토지의 재산세 취득세 감면문제와 더불어(일부 목장용 초지등에는 감면되고 있음) 앞으로 연구되어 저야 할 것이다.

축산업자가 세무관계에서 가장 어려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2 가지로 나눌수 있겠다.

첫째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리장부의 기장이 어려운데 있다.

별도의 경리 직원을 채용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 또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육체노동을 하는 경영주가 일일히 증빙서를 갖추어 기장하는 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둘째, 대군 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세 납부를 할 경우 생산물 판매에 따른 제반 증빙서를 갖추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되고 있다.

사료를 비롯한 각종 재료의 구입시에는 그 래도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 수 있으나 아직도계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계 상태로 겨 래되고 있고 계란의 유통도 전근대적인 관계

로 증빙서를 요구할 경우 생산물의 판매 조건이 크게 불리하여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 축산업 협동 조합이 발족하여 현 수협과 같이 유통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니 그때에는 모든 것이 축협을 통하여 잘 이루어 질줄로 생각되나 정상 패도에 오를때 까지는 어쩔수 없이 추계과세(인정과세)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수 밖에 없다.

29일 김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소득세 추계 결정을 위해 매년 업종별로 설정하는 소득 표준율을 올해 사업년도부터 대폭 현실화 시킬 방침이라고 하였다.

양계업에 있어서 현행 제2의 세율이라고 하는 소득 표준율은 11%로(부과는 12.5%) 실제 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졌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사료가격 등 제재료비의 인상으로 생산비는 높아지는데 반하여 생산물 가격에 이에 비례하여 오르지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를 얼마나 극복할지는 알수 없으나 더욱 외형액 만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번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현실화의 목적이 소득 표준율이 낮으면 자료를 은폐하여 추계 결정을 받고 높으면 장부를 제시하는 악덕 불성실 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득표준율이 높아도 추계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많은 양축업자로서는 현실에 맞는 소득표준율이 정해져서 실질 소득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러한 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국세청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란다.